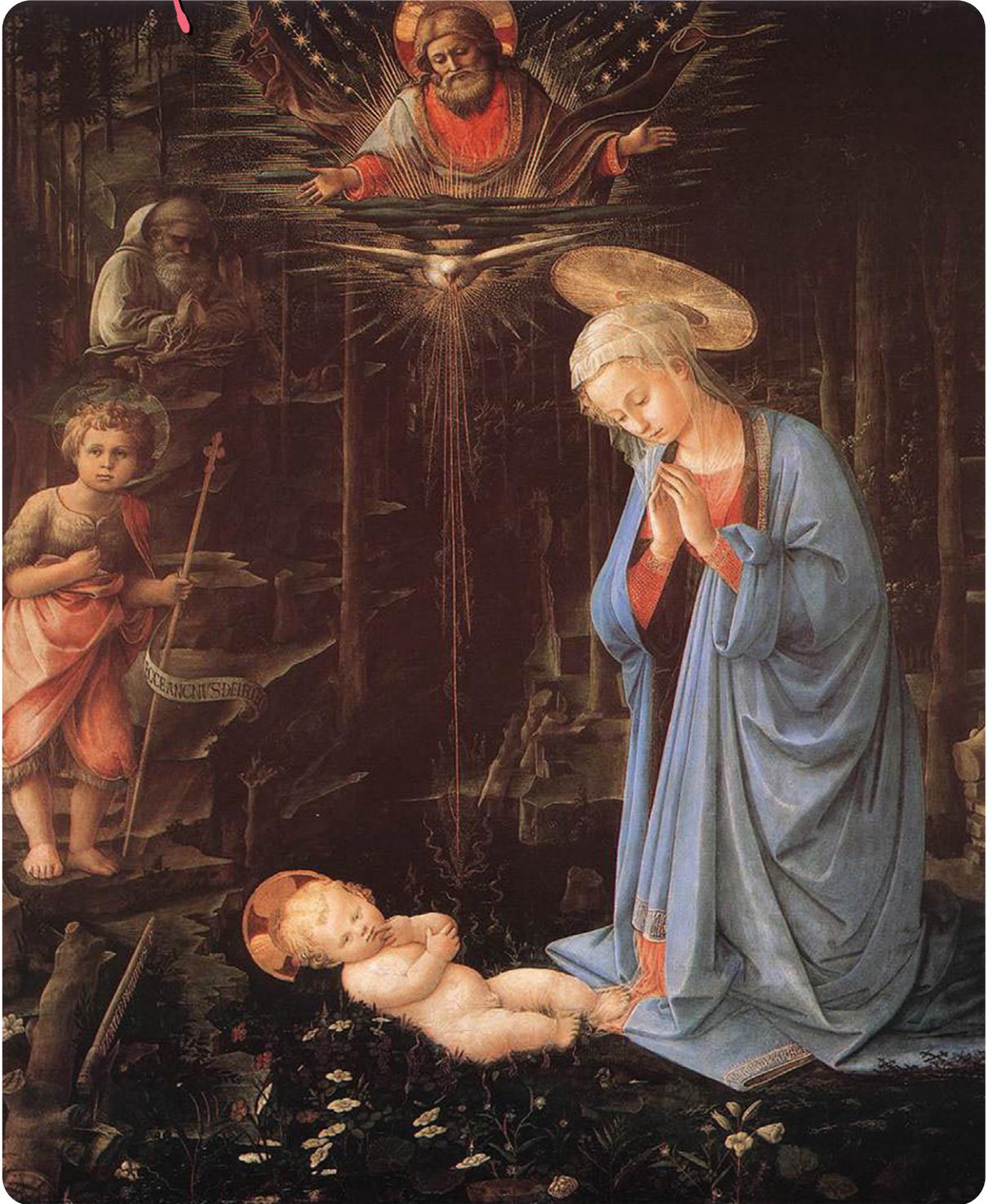


# 대구주보

예수 성탄 대축일

2011. 12. 25.(나해) | 제761호 |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야기 예수님께서 베푸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교구 10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의 해였습니다.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가 주님의 도우심과 많은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도 감사드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복음을 위한 열정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또한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분께서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요한복음 1,9 참조)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국가들이 선택한 제도가 민주주의라면 무엇보다 민의를 알고 민의를 받드는 것이 민주주의일 터인데, 모두들 민의를 생각지 않고 자리다툼, 세력다툼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리다가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걱정하느냐 하면 정치가 바로 서야 이 나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 성탄의 신비를 살면 됩니다.

성탄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높은 영광된 자리를 떠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낮춤이며 겸손입니까! 그래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밤새 양을 지키던 가난한 목동들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모범, 이 낮춤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힘들게 사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한 몸의 영광과 평안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결코 알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에 싸여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위선과 속임수를 깨치는 진리이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고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당신의 겸손을 배우고 당신께서 본을 보여 주신 참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우리나라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오늘의 미사

예수 성탄 대축일

입당 성가

102 어서 가 경배하세

화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106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영성 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파견 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성의 향기

::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요란하게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은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하느님께 채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밀한 목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속에 살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에서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이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이 들음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대구 주교님

- 교구 사목국 권 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다시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품위를 인식하고 이전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머리와 어떤 몸의 지체인지 생각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나라와 광명으로 옮겨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더러운 행실로써 그 성전에 거하시는 고귀한 손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피의 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 성 대 레오 교황의 성탄 강론에서 -

성소/피정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기도에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14:00  
장소: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수원 관구  
문의: (010)3402-5232  
http://cafe.daum.net/vocatio

2012년 대구맨발가르멜재속회 회원모집

첫째주일: 가르멜산 성모 재속회  
첫째월요일: 아기예수의 성녀 테레사 재속회  
넷째주일: 예수의 성녀 테레사 재속회  
넷째월요일: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회  
대상: 만55세 이하, 문의: (011)530-7763

교육/모집

제31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일시: 2012.1.9(월)~13(금) 19:00~21:3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마감: 2012.1.2(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복음화담당, 250-3056

제5차 로고스 창세기(성인반)연수

일시: 2012.2.4(토)~5(일), 1박 2일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교육관, 8만 원  
주최: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창작사진: 2012.1.2(월) 10:00  
칭찬기술-특강: 2012.1.2(월) 9:00  
목소리를 바꿔라: 2012.1.3(화) 17:00  
제대꽃꽂이-나해: 2012.1.6(금) 11:00  
문의 및 신청: 254-6115

1월 영어성경 공부반 모집

개강: 2012.1.3(화) 10:00~12:00 월 2만 원  
과정: 관관기, 히브리어(화, 목 강의)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다문화가정 공부방 봉사자 모집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대상: 유치부~고1학년  
모집: 성인 교육 관련자(중·고·대학생 제외)  
내용: 1대1수업지도, 학년별 그룹지도, 1년 답임제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제4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2012.1.5(목)~11(수)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2012년도 산 자연학교 초중등 신입생 모집  
생태영성으로 아이들의 사회적 소통과 스토리텔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체험중심의 대안학교를 희망합니다.  
교장: 정홍규 신부  
문의: (054)338-0530(www.sanschool.org)

대기대 평생교육원 음악원 동계 수강생모집

기간: 12.19(월)~31(토), 개강: 2012.1.2(월)~  
과정: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오르간, 재즈피아노, 오카리나, 아코디언  
음악기초 이론, 성가대지휘 특강 등  
문의: 660-5554~5557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신구어입문 2년)

방법: 우편학습과 이리닝 학습(동영상 강의)  
원서교부: http://us.pauline.or.kr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접수: 11월~2012.1.25. / 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 / 0840-42(이리닝 학습)

2012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취업을 전국 4년제 대학 통합 1위  
모집학과: 간호학과(40명),  
사회복지학과(2명), 유아교육과(2명)  
원서접수: 12.23(금)~28(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전문) 임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or.kr  
여대생기숙사 과달루페 집(일본어 스페인어)  
주소: 대전시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042)534-8876

직원채용

상동성당 신자조합 직원채용(764-0664)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자필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교적사본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여학생기숙사  
사감선생님 모집(숙식 제공 가능함)  
자격: 30세~45세 고졸 이상  
문의: 김 마리아 수녀, (010)9861-6691

안내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료: 7면 13만 원, 8면 15만 원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일거리를 찾습니다.  
들꽃마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단순 임가공 일거리를 찾습니다.  
문의: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 (054)956-9800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 나눔 캠페인]  
교구 사회복지회 집중 모금 안내

2011년 11월 27일 ~ 12월 25일  
아기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대구 069-10-000445 ☎ 422-3411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6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7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비노의 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12월 29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12월 26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군소후원회 미사	12월 31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수맥 흙(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이아리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종원 (소시무)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ai.com  
근본치음  
침은김기(혈, 비염, 천식, 중이염)  
· 티, ADHD  
· 난치성 이토피  
· 연어발달장애, 자폐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한의원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592-1275, 593-1275

밝은 눈 안과

원장 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맑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약박사/전문 의 김 기 산(안드레이)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 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대거리⇔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752-9797